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을 적시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주간지입니다.

2015/3. 30

국토정책 Brief
KRIHS ISSUE PAPER

KRIHS POLICY BRIEF • No. 508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김경환 • www.krihs.re.kr

창조산업 · 창조계층 입지특성과 도시경쟁력

김은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경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소양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1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창조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3.5%, 창조계층은 총취업자의 13.2%이며, 고용 및 소득측면에서 국가경제 성장의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창조산업 · 창조계층 경제효과 분석 결과,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산업과 경영금융전문가, 공공경영전문관리자, 과학정보기술자, 교육행정가의 집적은 도시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장소와 오디오비주얼, 창조서비스, ICT디바이스 산업과 핵심연구인력, 공공경영전문관리자, 과학정보기술자 등은 도시 고용수준 향상에 기여

3 창조적 인력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해서는 도시매력도, 도시생활기반 서비스, 직업환경, 거주환경 등의 도시 어메니티 향상과 창조적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며, 특히 교통 및 의료 등 도시생활기반 서비스의 편의성 향상 필요

정 책 방 안

❶ **(도시소득 및 고용기반 확대)** 소득 및 고용측면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 산업군 · 직업군을 유치 및 육성하는 전략을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

❷ **(창조적 생태계 구축)** 도시 어메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환경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및 기반시설 정비, 공유공간 임대를 통한 소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활성화,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등 도시생활기반 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❸ **(도시재생 관련 제도 개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과 연계토록 하고,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 유치환경 조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 가이드라인의 수립, 활용 필요

1.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의 개념과 분류

■ 창조경제는 "창조성"과 "지적 자산"이 제품 및 서비스 생산으로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과 부가가치로 실현(UNESCO & UNDP, 2013)

○ **(창조산업)** 영국의 Work Foundation(2007)이 제시한 동심원 모델에 의하면 창조산업은 문화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구와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유형을 포함하여 혁신 의존적 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

○ **(창조계층)** 2002년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의 교수인 리처드 플로리다(R. Florida)가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를 출간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으며, 플로리다의 창조계층은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 관리자, 기술자(단순히 문화와 창조산업의 종사자가 아니라)를 포함하며,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현대 도시사회의 혁신적 에너지와 문화적 역동성의 근원이 됨

■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의 분류

○ **(창조산업)**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네 가지 창조산업 유산, 예술, 미디어, 실용적 창조)에 'ICT 창조기반'을 추가하여 5개 부문, 10개 창조산업군, 136개 세세분류 창조산업으로 정의함(박경현 외, 2013)

○ **(창조계층)** 예술·문화 분야 및 지식·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분류하기 위해 직업별 전문 분야와 평균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예술, 핵심, 일반 창조계층으로 구분하고 9개 세부분야, 38개 직업군을 추출함(김은란 외, 2011)

그림 1 창조산업 분류

UNCTAD 창조산업
1. 유산
2. 예술
3. 미디어
4. 실용적 창조

박경현 외(2013)의 창조산업	
1. 문화자산	① 문화적 장소
2. 예술	② 시각예술
	③ 행위예술
3. 미디어	④ 출판 및 인쇄
	⑤ 오디오비주얼
4. 실용적 창조	⑥ 디자인
	⑦ 뉴 미디어
	⑧ 창조 서비스
5. ICT 창조 기반	⑨ ICT 통신서비스
	⑩ ICT 디바이스

그림 2 창조계층 분류

Florida의 창조계층
핵심적 창조계층 (super-creative core)
창조적 전문가 (creative professional)

김은란 외(2011)의 창조계층	
예술(문화) 창조계층	① 순수창작자
	② 문화지원자
핵심 창조계층	③ 핵심연구자
	④ 핵심전문가
일반 창조계층	⑤ 공공전문관리자
	⑥ 과학정보기술자
	⑦ 보건복지전문가
	⑧ 교육행정전문가
	⑨ 경영금융전문가

2. 창조산업 · 창조계층의 도시경제적 효과: 소득 및 고용측면

창조산업 · 창조계층의 위상

- **(창조산업)** 2012년 창조산업 종사자는 118만 명으로 전 산업 종사자의 6.3%이며, 2008년 6.5% 대비 감소하고, 2012년 창조산업 사업체수는 12만 5천 개소로 전체 사업체수의 3.5%이며, 2008년 3.1%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규창업이 증가하였으나 고용측면에서는 다소 위축되었음을 의미

- **(창조계층)** 2012년 현재 창조계층은 318만 명으로 총취업자의 13.2%이고, 2008년 12.7% 대비 절대규모와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창조계층 연평균 고용성장률은 2.3%로 비창조계층의 1.2% 대비 두 배 정도의 높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짐

도시경제에 유효한 창조산업 · 창조계층

- 10개 유형의 창조산업과 9개 유형의 창조계층 중 일부만이 도시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도시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창조산업 · 창조계층
  -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등 창조산업이 집적하고 과학정보기술자, 교육행정가의 일자리가 많거나 경영금융전문가, 공공경영전문관리자, 과학정보기술자, 교육행정가가 많이 거주하면 도시소득수준 향상에 기여

- 도시 고용수준을 향상시키는 창조산업 · 창조계층
  - 문화적 장소, 오디오비주얼, 창조서비스, ICT디바이스 등의 창조산업이 집적하고, 핵심연구인력, 공공경영전문관리자, 과학정보기술자 등의 일자리가 많거나 공공경영전문관리자, 보건복지종교관련직, 과학정보기술자 등이 많이 거주하면 도시 전반적인 고용수준이 증가

그림 2 창조산업 · 창조계층 집적과 도시경제: 소득 및 고용

3. 창조산업 · 창조계층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사례지역 특성

■ 창조산업 · 창조계층의 입지요인 분석을 위한 사례지역의 선정

○ 인구 30~50만의 중규모 도시들 중에 창조적 인력의 근무지이자 거주지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시와 경기도 파주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 해당 사례지들은 2008~2012년까지 창조산업 사업체 및 창조계층 종사자수가 빠른 성장을 보임

■ 제주: 창조산업과 문화이주자의 유입

○ 최근 제주는 창조기업의 도내 유입과 문화이주자의 증가로 인해 창조적 인력의 거주지로 더욱 주목 받음

○ (창조기업의 유입) 최근 도내로 다양한 창조기업들이 이전해오면서 창조산업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 2014년까지 도내로 유치된 기업들은 IT, BT, 연수원, 화장품 및 의약 관련 제조업 및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창조산업들이 대부분으로 이 중 상당수가 제주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였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스트소프트를 필두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IT 산업의 특성상 30대를 전후의 젊은 인구가 도내로 유입

○ (문화이주자의 증가) 제주 올레의 인기와 더불어 저가 항공의 등장으로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나 장단기 체류자들이 증가하였으며, 본격적인 외지인의 제주도 이주 러시가 시작된 것은 2010년 정도로, 특히 창조적 활동을 위한 영감을 얻고자 하며 별다른 장비 없이도 작업이 가능한 소설가, 만화가, 화가, 음악가 등 문화예술인들의 이주가 두드러짐

○ 젊은 IT 및 BT 연구개발인력과 문화이주자와 같은 창조적 인력이 도내로 대거 유입된 후 이들을 유지할 수 있는 창조적 생태계와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음

■ 파주: 출판단지와 예술마을의 조성

○ 파주는 출판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출판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을 시작으로 1997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조성된 파주출판도시와 예술인들이 스스로 거주와 작업공간을 조성한 헤이리 예술인 마을이 입지하면서 문화예술부문의 산업과 종사자들이 집적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곳임

○ 파주에 출판단지와 예술마을이 조성될 수 있었던 요인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에서 토지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자연경관 및 환경이 창조적 인력에게 매력적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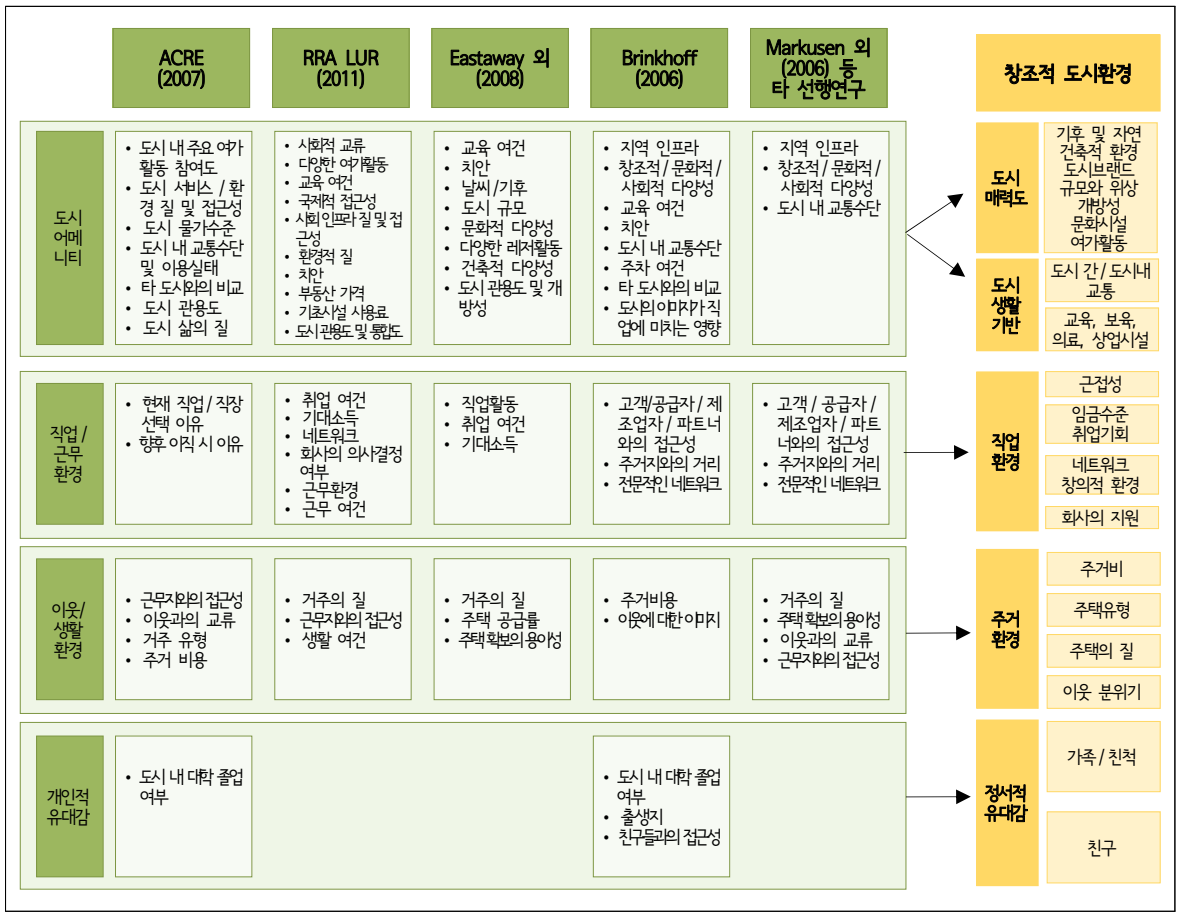
입지요인 분석틀

■ 창조산업 · 창조계층의 입지요인: 창조적 도시환경의 구성요소

○ 창조산업이 입지하거나 창조계층이 거주 · 생활하는 지역여건을 '창조적 도시환경'이라 정의하고, 창조산업의 종사자와 창조계층을 유인하는 창조적 도시환경의 요소를 도출함

○ 창조적 환경의 구성요소를 도시의 매력도, 도시생활기반, 직업환경, 주거환경, 정서적 유대감 등 5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26개 항목으로 세분화함

그림 3 창조산업 · 창조계층 입지요인: 창조적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들



■ 입지요인 분석방법

○ 입지요인 분석 시 먼저 사례지역에 대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체 입지요인 및 창조산업 종사자와 창조계층의 근무지 및 거주지 결정 요인을 조사하고,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통해 입지결정 시 고려한 요소 간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분석

○ **(창조산업 기업체 입지요인)** 기업가 및 임원진, 단지기획담당자 대상의 면접조사를 실시

○ **(창조계층의 근무지 및 거주지 결정 요인과 만족도)** 대상지 내부의 창조산업 종사자와 창조계층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지요인을 분석

창조적 인력 입지결정 요인과 창조적 도시환경 조성의 과제

■ 창조적 인력의 거주지 입지결정 요소별 중요도

○ **(도시매력)** 창조적 인력은 7개의 도시매력 세부요소 중 기후 및 자연환경, 다양한 문화시설의 입지, 다양한 여가활동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

○ **(도시생활기반)** 6개의 세부요소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며, 특히 도시 간 교통 연계성, 도시 내 교통 편의성, 충분한 의료시설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직업환경)** 7개의 세부요소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며, 특히 본인 일터의 근접성, 배우자 일터의 근접성, 임금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주거환경)** 주거비, 주택유형, 주택의 질, 이웃의 분위기 등 4개 요소 모두 중요

○ **(개인유대)** 가족·친척보다는 친구의 유무가 거주지 결정에 더 영향을 미침

■ 창조적 인력을 유인하는 도시환경

○ 제주와 파주에 거주하는 창조적 인력은 거주지 결정 시 도시매력과 주거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입주 후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기후 및 자연환경, 다양한 문화시설의 입지, 다양한 여가활동의 가능성 등의 도시매력과 주거비, 주택유형, 주택의 질, 이웃의 분위기 등의 주거환경이 이들을 해당 지역으로 유인함

■ 유입된 창조적 인력의 정착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도시환경

○ 제주와 파주에 거주하는 창조적 인력은 도시생활기반 서비스와 직업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현재 해당 환경에 대해 매우 불만족한 상태

○ **(생활기반 측면)** 생활기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교통과 의료에 대한 불만이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차원의 투자가 필요

○ **(직업환경 측면)** 임금수준, 취업 및 이직 용이성, 정보 및 네트워크 용이성 등은 예술인보다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출판단지의 임금근로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나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조적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과제

○ 창조적 인력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해서는 도시매력, 도시생활기반 서비스, 직업환경, 거주환경 등의 도시 어메니티 향상과 창조적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며, 특히 교통 및 의료 등 도시생활기반 서비스에 대한 공공차원의 투자 필요

○ 도시 어메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극적 지원, 창업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및 기반시설 정비, 공유공간 임대를 통한 소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제고,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등 도시생활기반 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필요

표 1 창조적 인력의 거주지 결정 요인의 중요도 및 만족도(IPA분석 요약): 제주, 파주 사례

입지요인		제주		파주		
		첨단과학 기술단지	제주 시내	출판단지 (파주 거주)	헤이리 (파주 거주)	헤이리 (마을 거주)
		IT · BT	예술문화	출판	예술문화(IT)**	
도시 매력	기후 및 자연환경(산, 바다 등)	○	○		○	○
	아름다운 건축적 경관				○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		○			
	도시의 규모와 국제적 위상					
	도시민의 다양성 및 개방성(인종, 국적, 출신 지역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입지	×	○	×	○	○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	○		×		○
도시 생활 기반	도시 간 교통 연계성(고속도로, 철도, 선박, 항공 등)	×	×	×	×	×
	도시 내 교통 편의성	×	×	×	×	×
	우수한 교육환경(초중고교 및 대학교)			×	×	
	충분한 보육시설			×	×	
	충분한 의료시설	×	×	×	×	×
	충분한 상업시설			×	×	
직업 환경	본인 일터의 근접성	○	○	○	○	○
	배우자 일터의 근접성			○	○	○
	다른 지역보다 임금수준이 높음	×		×		×
	동종업종이 많아 취업 및 이직 용이	×		×		
	직업 관련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용이성	×		×		
	다양한 업종의 시너지에 따른 창의적 분위기			×		○
	회사로부터 지원(거주비, 이전 비용 포함)	○				
주거 환경	주거비(집값 포함)	○	×	○	○	○
	선호하는 주택유형의 유무(아파트, 전원주택 등)	○	○	○	○	○
	양호한 주택의 질		○	○	○	○
	이웃 및 커뮤니티의 분위기			○	○	×
개인 유대	가족/친척이 이 도시에 살고 있음					
	이 도시에 친구들이 많음		○			×
거주지 종합만족도		3.8	4.0	3.31 (2.83)*	3.63	3.73

주: ○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음, ×는 중요도는 높고 만족도는 낮음.
*는 파주출판단지 내 거주자 만족도, **제니퍼소프트

4. 창조산업·창조계층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 소득 및 고용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창조적 산업군·직업군의 육성 및 유치

○ 지역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등의 창조산업과 과학정보기술자, 교육행정가, 경영금융전문가 등 창조계층을 유치 및 육성

○ 지역의 고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장소와 오디오비주얼, 창조서비스, ICT디바이스 등의 창조산업과 공공경영전문관리자, 보건복지종교관련직, 과학정보기술자, 핵심연구인력 등의 창조계층을 유치 및 육성

■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의 유치 및 유지할 수 있는 창조적 도시환경, 즉 창조적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창조산업 종사자와 창조계층을 유치 및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그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도시적 환경을 조성

○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매력, 도시생활기반 서비스, 직업 및 거주환경 등의 질적 향상이 필요

○ 도시 및 도심 어메니티의 향상을 위해 문화적 환경에 대한 지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창업지원 및 인력양성 등을 동시에 추진

■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조산업·창조계층 유치·육성 및 법제도의 개선

○ 우리나라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파주(헤이리마을)와 같이 신규개발지에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샌프란시스코나 영국의 Tech City 등 해외사례에서는 기존 도심의 어메니티 활용과 향상을 통해 창조산업·창조계층을 유치 및 육성을 유도하는 정책이 다수

○ 이는 창조적 인력이 기후나 자연경관 외에도 문화적 환경과 접근성, 보행성(Walkability)과 같은 도시적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 측면에서 도심의 어메니티 향상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창조산업관련 입지정책들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가 필요

○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 유치환경 조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창조산업·창조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 제공

※ 본 자료는 "김은란 외. 2014.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국토연구원"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임.

김은란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rkim@krihs.re.kr, 031-380-0668)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책임연구원 (khpark@krihs.re.kr, 031-380-0265)
정소양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jungsy@krihs.re.kr, 031-380-0176)

〈 거주지 〉